

“30년 종무 회향...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희 위원, 여성종무원 첫 정년퇴임
총무원장 원행스님 직접 공로패 수여



11월28일 퇴임한 박상희 위원에게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인사를 건네고 있다.

30년 종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하는 박상희(63) 연등회보존위원회 전문위원이 꼬깃꼬깃 접은 메모지를 꺼내놓고 200명 앞에 섰다. 퇴임식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던 한 자 한 자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읊어 나가는 박 위원 얼굴에 만감이 서렸다.

“지금까지 한 길을 걷게 해준 불보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종무원 생활을 하며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보람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1996년 연등회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제등행렬을 시작한 이후로 제게 화두는 늘 ‘신나는 축제 자랑스러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연등회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해준 스님과 종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 위원은 1989년 총무원에 입사해 연등회 실무자로 출발해 1996년 동대문에서 조계사로 제등행렬이 정착되고 2012년 제122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줄곧 한 길만 걸었다. 직급 나이 상관없이 늘 따뜻하고 인자하게 품는 그녀 때문에 전국이 들썩이는

5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시, 참가단체 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연등회 보존위 일도 무던히 흘러갈 수 있었다는 평이다.

그런 그를 떠나보내는 날,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은 단 한 사람을 위한 퇴임식을 준비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 문화부장 오심스님, 조계사주지 지현스님, 중앙종회의원 진명스

님 등 “수고 많았다”는 스님들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던 일반직 종무원들은 어색함이 뚝뚝, 오글거림이 가득한 “사랑합니다” “꽃길만 걸어요”가 가득한 영상 편지를 보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 또한 바쁜 일정을 쪼개 퇴임식에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연등회의 숨은 공신”이라며 “박상희 위원이 있었음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희 위원의 열정으로 이룩한 성과를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역량으로 종단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 있는 종무원들 또한 한 곳을 보고 함께 가는 평생의 동반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달라”고 했다.

여성 재가 종무원으로는 첫 정년 퇴임자.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박 위원은 “퇴임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연등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화쟁위, 현장 찾아가 갈등 해결

37차 전체회의 개최...향후 사업계획 논의

화쟁위원회가 교구와 사찰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청소년에게 올바른 화쟁의 가르침을 전달할 안내 책자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스님)는 지난 11월2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찰과 지역, 스님과 신도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화쟁 좌담회’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다소 묵직한 사건을 다뤘던 것과 달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구, 사찰, 신도 단위의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지역사회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지역에 화쟁위원회 활동과 중요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용 화쟁 안내서’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스님)는 지난 11월26일 교내 도서관 2층에서 ‘불국사 열람실’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타스님과 불국사 부주지 정문스님 등 불국사 스님들과 이대원 총장, 정각원장 법수스님이 참석했다. (사진)

성타스님은 지난 11년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를 지내며, 불교인재양성과 종립대학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주캠퍼스 발전기금 5억 원을 후원하고, 서울캠퍼스와 동국대 의료원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등 총 10억 7000만원을 쾌척했다. 경주캠퍼스는 성타스님의 무주상보시행에 대한 고마움

위해 만들었던 화쟁 안내서 1편에 이어 2편도 내년 초 발간을 앞두고 있다. 화쟁 안내서 2편은 교육원 승려교육 교재로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화쟁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종단 내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제 주체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종단은 노동조합을 둘러싼 갈등을 화쟁적으로 해결할 것

사찰·신도 단위 갈등 해결
‘찾아가는 화쟁 좌담회’ 추진
종단 노동조합 문제 관련해
원만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

△제 주체들은 해고·징계 및 고소고발 등의 갈등행위를 중지하고 활발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 △이 갈등을 계기로 종단이 화합과 혁신, 건강한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가는 데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화쟁위원회 내 ‘종단 노동문제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화쟁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총무원 측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천막법당에 학생들 몰려온다

동대부속여중·남중생 100여명
‘금강경’ 독송하고 소원들 달아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럼 3달 동안 게임 못하잖아요.” “전 못 쉴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천막법당 안에서 말도 안 하고 사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해요.”

지난 11월29일 위례 상원선원에 중학생들이 나타났다. 부처님 고행을 떠올리게 할 만큼 엄한 청규를 지키며 천막 결사하는 상원선원 아홉 명 스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동국대사범대 부속 여자중학교 학생 30명과 남자중학교 학생 70여 명이 찾아온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일환으로 선원을 찾은 학생들은 <금강경>을 독송하고 선원 주변에 소원들을 달았다.

이날 선원을 찾은 동대부여중 파라미타 1학년 학생들은 금강선원이 개최한 ‘금강경 강송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실력자들이다. 학생들이 직접 목탁을 집전하며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독송하자, 선원 안팎을 오가던 스님과 신도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천막결사를 시작한 스님들 생활과 청규를 확인한 청소년들은 “진짜요?”를 연발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임가는 학생을 비롯, 육나연, 백다빈, 박소이 학생 등 파라미타 회원들은 “선원 규칙을 듣고 지금 삶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년 해제 후 선원을 나서는 스님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고 끈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정란 동대

부여중 교장은 “학생들의 맑은 독경소리가 스님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선원을 찾은 동대부중 학생들은 신명나는 사물놀이반 학생들의 공연에 이어 파라미타 회원들의 <금강경> 독송이 이어졌다. 추운 겨울 한 끼만 먹고 씻지 않고 묵언하며 지내는 스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어진(14)군은 “수행 잘 하시고 건강하게 좋은 깨달음



동국대사범대 부속중학교 학생들이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부속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소원들을 달고 있는 모습.

얻길 바란다”고 기원했고, 김태희(14)군은 “스마트폰 없이 살면서 말도 안하는 건 생각만 해도 어렵지만 스님들이 끝까지 잘 해내시리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이영숙 동대부중 교장은 “요즘 아이들이 어려움을 잘 몰라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모습 떠올리며 이겨내는 마음 길러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경주 동국대 ‘불국사 열람실’ 생겨

법인 이사 회향 앞둔 성타스님
후원에 고마움 담아 동판 설치

동국대 경주캠퍼스 중앙도서관에 ‘불국사 열람실’이 생겼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이대원 총장)는 동국대 후원에 앞장서 온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에게 고마움을 담아 지난 11월26일 교내 도서관 2층에서 ‘불국사 열람실’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타스님과 불국사 부주지 정문스님 등 불국사 스님들과 이대원 총장, 정각원장 법수스님이 참석했다. (사진)

성타스님은 지난 11년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를 지내며, 불교인재양성과 종립대학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주캠퍼스 발전기금 5억 원을 후원하고, 서울캠퍼스와 동국대 의료원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등 총 10억 7000만원을 쾌척했다. 경주캠퍼스는 성타스님의 무주상보시행에 대한 고마움



을 담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를 알리겠다는 뜻을 담아 ‘불국사 열람실’을 설치했다.

성타스님은 “다른 사찰 및 스님, 불자들이 불교종립 대학인 동국대의 발전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대원 총장은 “인재 불사를 위한 성타스님과 불국사의 원력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큰 힘이 된다”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dongguk university hospital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형(40평형)부터 고양시 최대면적(180평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빈소와 합리적 가격, 최신시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장례방법 및 장례일정 상담 (화장, 입관, 발인 등)
- 고인 빈소 차림 및 조문객 접객 준비
 - 부음, 부고 안내
 - 금품수수 일절 금지



NAVER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365일 주·야 24시간 모든 장례절차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31-961-9400, 9444